

개인특성 및 자아해석 양식의 단기 활성화에 따른 도움행동의 양상에 관한 연구*

조 속 자	방 희 정 [†]	조 혜 자	김 현 정
이화여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심리학과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인 성별 및 애착유형과 단기적으로 활성화된 자아해석 양식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단기 활성화된 점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개인특성 효과가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의 도움행동 점수가 높았으며, 불안 애착 집단이 안정애착 집단보다 도움행동 점수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 점화 효과에 따른 도움행동에서의 차이가 나타나 여성은 독립적 자아해석이 활성화되는 점화 조건에서 도움행동 점수가 높았다. 도움행동 유형별로 볼 때 개인적 도움행동보다 관계적 도움행동의 점수가 더 높았다. 논의에서는 결과를 자아우선성 가설과 성고정관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주요어 : 도움행동, 성별, 애착, 점화, 자아해석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이 연구를 도와준 이화여대 발달심리 연구팀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 방희정, 이화여자 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 hjbang@ewha.ac.kr

최근 우리 사회는 공감, 배려, 도움, 봉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적 특성이라고 여겨지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대학 교과목에 사회봉사가 있으며, 대기업은 사회봉사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방송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내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의 기저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아끼듯이 남도 소중하게 배려하는 정신과 그 실천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 시도는 개인마다 다른 효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교과목이나 광고 자체의 경험으로만 남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과연 어떤 요인이 이렇게 다른 효과를 만드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및 자아해석 양식의 단기 활성화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별과 애착유형이 개인특성으로 검토되었으며 독립적 자아해석 양식과 관계적 자아해석 양식이 명시적 점화를 통해 단기 활성화되었다.

자아해석 양식이 성별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Cross, Bacon과 Morris(2000)는 남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자아해석(independent self construal)을 하는 반면, 여성은 돌봄과 양육을 강조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 construal)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Cross와 Madson(1997)은 남성과 여성의 성차는 바로 자아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자아해석 양식에 따라 정보처리 양상에서부터 기억하는 양상, 동기, 정서의 표현, 자기 개방의 정도, 의사소통의 양상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것이 남녀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점화를 통해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자아해석 양식을 단기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도움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유사한 논리를 애착유형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타인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 동일시, 공감 등의 특성으로 독립적 자아해석 보다는 관계적 자아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점화를 통해 자신의 애착유형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자아해석 양식을 단기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도움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와 같은 물음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애착유형 및 자아해석 양식의 활성화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봉사활동은 상당히 장기적인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도움행동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종속측정치는 봉사활동이라기 보다는 도움행동으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성별과 애착으로부터 유발되는 친사회적 행동은 봉사활동이기 보다는 양육적 행동과 유사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여성과 남성의 자아

인간은 남녀를 막론하고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고, 시간과 장소에 걸쳐 동일성을 가진 존재로 자아를 경험한다. 자아의 경험은 정체성 확립의 기초가 되며 개인에게 사고 및 행동의 주체성을 부여한다. 자아의 경험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경험되는 자아의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다. 개인마다 경험되는 자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남녀는 다른 자아 내용을 가졌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자아 내용에서의 성차에 관한 관점은 오랜 전통을 가진다.

우선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신체구조로 인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관계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는다고 보았다. 심리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Erikson (1968a)조차도 여성의 정체감 형성은 육아를 담당하는 존재, 심리, 윤리적인 관여 등 친밀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Chodorow(1989)는 전 오이디푸스 시기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남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들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지각하고 아들에게 분리와 독립을 장려하므로 남자는 접촉이 많지 않은 아버지를 지위동일시 하면서 분리와 독립이 발달한다. 반면 어머니는 딸을 자신과의 연속선상에서 지각하고, 딸 역시 어머니를 개인 동일시하므로 아들과는 달리 엄격한 자아 경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의 성격은 관계와 연합 위에서 형성되며, 엄격한 독립적인 자아경계보다는 침투적이고 유동적인 경계를 가지며, 개별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정신분석 전통에 서지 않은 여성주의 심리학자들 역시 여성들은 관계적 자아를 갖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Gilligan(1982)은 서구의 자아심리학에서 자아 개념을 타자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남성 중심적 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정서적인 연결이라고 보았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자아감과 도덕성을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나 돌봄과 연결시킨다고 지적한다.

한편 Eagly(1987)는 여성이 양육적이고 관계적이 된 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의 성 분업은 임의적인 것이었지만, 결국 남녀 간에 현저한 사회적 범주를 만들었고 그 속에 놓인 남녀에게 다른 특성을 갖게 만들었다고 본다. 성 정체감 이론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성 정체감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남성성 여성성을 성격변인으로 간주하는 연구들은 남성성은 도구성 또는 주도성으로 대표되고, 여성성은 표현성이나 친교성으로 대표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개인정체감의 중요 부분으로 여기며 남녀는 매우 다른 자아 내용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남녀는 다르며 관계지향적인 특성은 여성의 중요한 자아의 내용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이런 관점은 도전받고 있다. 개인이 맺는 관계가 단일하거나 총체적이지 않으며, 인간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적 자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은 관계적이고 남성은 독립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자아해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각은 자아의 변화 가능한 개인특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이나 자극과 같은 맥락 조건을 강조한다. Gergen(1990a)은 관계적인 자아를 탈현대의 인간의 조건으로 본다. 사회적 연결이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 맥락 속에서 자신을 다양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며, 맥락 의존적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현대의 삶의 조건이라고 전제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하여 강조하는 자아의 안정적 개인특성이 과연 적응의 조건인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기존의 심리학에서 여성적 특성으로 여겼던 관계적 특성 역시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또 필요한 자아의 측면이다. 그러나 관계적 특성이 여성에게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자아 내용일 수 있으나 남성에게는 다양한 자아의 모습들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특정 시점, 특정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는 특성일 수 있다. 역으로, 현대 사회는 독립성과 유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남성적 가치로서의 독립성과 유능성은 관계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남성에게는 장기적으로 인식된 자아내용일 수 있으나 여성에게는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는 특성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 특성으로서의 성별은 단기적 활성화에 의해 그 영향력이 변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개인을 둘러싼 만성적 조건인 성역할을 넘어서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자아를 드러내 삶의 문제에 대해 더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본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물음이라고 본다.

개인특성과 도움행동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을 강조하였다. 타인과 따뜻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나, 양육적인 특성, 공감 능력 등 개인 특성은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되게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친사회적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은 개인특성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다(Belansky & Boggiano, 1994;

George, Carroll, Kersnick, & Calderon, 1998; Hyde, 1990).

성별과 애착 유형은 생의 초기부터 인식되는 개인특성으로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인에게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내용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 내용은 자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 성별과 애착유형도 자아의 중심에 자리 잡은 개인특성이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직면은 자신을 여성적 성역할 틀 속에서 바라보게 한다. 또한 개인은 생의 초기에 양육자와의 반복되는 관계경험을 통해 다른 유형의 애착을 경험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Bowlby, 1969).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정서적 안정, 자기 조절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내적 작동모델은 생애 초기에는 비교적 유동적이지만, 애착 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되면서 점차 특성이 고정된다(Egeland & Farber, 1984).

성별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는 관계성에 기반을 둔 양육적 특성이 강조되었으며, 타인의 불편함에 민감하고, 이를 보살펴주는 것은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였다(Chodorow, 1989; Eagly, 1987; Gilligan, 1982). 이는 실제 생활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여성은 타인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여성이 맡고 있는 육아나 주부의 역할에서 이 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지어 직업에서

도 여성에게는 비서, 간호사, 보육교사, 상담원 등 타인에게 구체적 도움을 주는 업무가 주어진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도움행동에서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다.

Eagly와 Crowley(1986)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더 도움을 주고 여성은 더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주는 성에 대한 효과크기는 .34였고 (male oriented), 도움을 받는 성의 효과크기는 -.46 (female oriented) 이었다.

비슷한 경향이 George, Carroll, Kersnick와 Calderon(1998)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은 다양한 연령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각된 문제의 심각성, 공감정도, 화, 동정, 친밀도, 원인 통제성, 대처, 자기효능감 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움행동의 시간과 도움 행동의 질을 예측하였다. 또한 도움을 받는 수혜자 역시 유사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러 문제 상황에 걸쳐, 여성은 더 오랫동안 도움을 주며, 도움의 질이 더 높고, 친구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공감과 동정을 보였다. 게다가, 친구에게 화가 나 있을 경우에도 비록 도움의 질은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도움을 주었다. 반면, 남성은 친구의 문제를 좀 더 통제 가능하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느꼈으며 더 많이 화를 냈다.

Belansky와 Boggiano(1994)는 성별, 도구적/표현적 자기도식 그리고 도움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참여자에게 PAQ 자기-기술 척도를 실시한 후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같은 9개의 시나리오를 읽게 하였다. 이 후 참여자에게 문제해결 및 양육적 행동 목록을 제시하며, 친구를 얼마나 도와주고 싶은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많이 도움행동을 보였으며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양육적

도움행동을 보였다. 반면 남학생은 도움행동 방식에서 차이가 없었다.

한편, Reysen과 Ganz(2006)의 연구 결과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목표 인물 앞에 펜을 떨어뜨리고 그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성별, 실험자의 성별에 따른 도움행동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성이 더 많이 돕거나 여성이 더 많이 도움받지 않았다. 이는 Eagly와 Crowley(198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이 연구에서는 도움을 주는 성에 대한 효과크기는 .02이고, 도움 받는 성의 효과크기는 .01로 미미했다. 이들은 논의에서 최근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되면서 도움행동에서의 성차가 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실험에서 방관자의 존재, 가용 도움자의 존재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과제가 참여자에게 하찮은 일로 비추어져 도움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성별과 도움행동에 관한 상반된 결과는 이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연구의 필요성을 열어 놓는다. 특히 전통적으로 남녀유별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과 도움행동이 어떤 관련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애착유형

도움행동과 관련된 또 다른 개인특성은 애착유형이다. 애착은 타인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로서 타인을 향한 정서적 유대는 동일시, 공감, 배려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도움행동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제기 되어 왔다(Bretherton, 1992; Gillath, Shaver, Mikulincer, Nitzberg, Erez,

Van, & Marinus, 2005; Wayment, 2006).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타인과 신뢰롭고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요구에도 민감하다. 따라서 애착 관계를 통해 발달된 배려와 공감 능력이 타인에 대한 도움행동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Wayment(2006)는 애착 유형, 공감, 도움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뉴욕의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일 내지 42일 지난 경과한 시점에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애착 유형, 비극에 대한 공감 정도, 도움행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안정 애착 점수가 높은 참여자들은 테러로 인한 상실감 경험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였으며 도움행동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불안 애착의 참여자들은 덜 공감하고 회피 애착 참여자들은 도움행동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유사한 결과가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회피 애착 유형의 참여자는 더 적게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이타적 동기도 적었다. 그러나 불안 애착 유형의 참여자는 자원 봉사를 통한 자기고양에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게다가 자원봉사는 높은 불안을 보이는 개인의 대인간 문제를 개선시켰다 (Gillath 등, 2005).

Omoto와 Snyder(1995)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에 관한 모델을 검증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특성과 연합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일부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에이즈 환자를 돕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자원봉사 동기, 이전 경험, 개인적 만족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개인적 특성은 도움행동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과 통합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봉사활동

의 지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봉사활동의 지속은 봉사활동의 동기, 사회적 지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도움행동은 성별 및 애착유형과 같은 개인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개인특성은 안정되고 일관적이라는 점에서 도움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성격특성 자체로서 구분되며, 그런 특성이 없는 사람의 도움행동 가능성을 낮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사회봉사, 배려 등을 강조하는 교과목, 회사차원의 봉사, 공익광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가? 최근 연구는 이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자아 활성화와 도움행동

도움행동은 상황 맥락이나 유발된 분위기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자선행사에 참여하여 예정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금으로 내 놓기도 하고, 수해의 참상을 담은 뉴스를 보고 여행을 취소하고 수해지역에서의 봉사활동으로 휴가를 대신하기도 한다. 예정보다 더 많이 기부금을 내고 계획을 취소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다분히 환경단서로부터 유발된 도움행동이다.

성별 및 애착유형은 개인에게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TV 뉴스 내용 및 자선행사의 분위기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회적으로 노출되어 인식되는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단기 활성화된 내용이다.

흔히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피험자에게서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맥락효과를 주는 것을 단기 활성화라고 한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독립

적 자아 혹은 관계적 자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자아고양 혹은 자아위협을 유도하기도 한다. 단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극을 식역하 수준으로 짧게 제시하는 암묵적 점화와 자극을 의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명시적 점화 기법을 사용한다. 암묵적 점화는 식역하로 제시되는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절차인 반면 명시적 점화는 자극에 대한 의식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명시적 점화는 실험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흔히 제시문을 주고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게 하거나, 단어를 맞춰 문장을 만들거나, 특정 대명사에 표시하는 등의 과제를 준다.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 점화를 통해 자아해석 양식을 단기 활성화시켰다.

단기 활성화 과제에서는 현재 처한 상황, 함께하는 사람, 요구되는 과제 등 환경 단서로부터 유발된 자극이 점화로 기능하여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점화자극을 이용하여 연구자는 다양한 태도나 행동을 개인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평소 안전하던 사람도 월드컵 응원에 들뜬 시청 광장 맥락에서는 숨겨져 있던 적극성과 열정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평소 심각한 것을 싫어하고 낙천적이던 사람이 슬프고 감동적인 실화를 보고 난 후, 진지하게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출된 단서가 점화자극으로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그와 관련된 자아가 활성화된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자아의 측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점화 기법을 통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특정 내용을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Nelson & Norton, 2005; Sinclair & Fehr, 2005;

Utz, 2004).

Utz(2004)는 협동(cooperation)이 자아활성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피험자는 상대와의 게임 상황에서 'I' 혹은 'We' 점화 조건에 할당되었으며 이런 점화효과가 상대에 대한 친사회적인 배려(allocation)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We' 점화 조건에서 가장 친사회적인 배려가 나타났다. 또한 개인 특성인 사회적 가치 지향성(친사회 성향 vs. 친자아 성향)과 점화 상호작용이 있어, 'I' 점화 조건에서 친자아 성향의 참여자는 더 적은 친사회적 배려를 보였으며, 친사회 성향의 참여자는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이런 경향성은 'We' 점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를 'We' 점화 조건은 암묵적으로 'I' 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I' 점화 조건은 'We' 점화 조건보다 더 강하게 자아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후 실험서는 'I' 점화와 'We' 점화를 하나로 묶어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실험에서 연구자는 먼저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주어 개인의 친사회적 성향 및 친자아 성향을 알아보았다. 이후 점화과제로 여행에 관한 글을 읽게 하였다. 'I' 점화 조건은 일인칭으로 쓰여진 글에서 'I', 'me', 'mine'(we, our, ours) 대명사에 동그라미를 치게 함으로서 'I' 를 점화시킨다. 통제조건에서는 삼인칭으로 쓰인 글에서 전치사(in, of, after)에 동그라미를 치게 하였다. 종속측정치는 게임에서의 친사회적 배려였다. 그 결과, 친사회 성향의 참여자들은 친자아 성향의 참여자보다 더 친사회적 배려를 보였다. 또한 친사회 성향 참여자들은 통제집단보다는 'I' 점화 조건에서 친사회적 배려를 보인 반면, 친자아 성향 참여자들은 통제집단보다

'I' 점화 조건에서 더 적은 친사회 배려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점화에 의해 자아가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적 특성인 사회적 가치 지향성도 함께 활성화됨을 보여준다. 개인 특성과 점화 상호작용은 반복 실험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났다. 이는 'I' 점화 조건은 자아에 초점을 맞추게 할 뿐 아니라 친사회적 성향, 친자아적 성향과 같은 개인 특성을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친사회적 성향의 참여자들은 'I'가 점화 되었을 때, 더욱 협조적이었다. 연구자는 논의에서, 점화 연구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자아해석이 강조되는 국가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 경우, 'I' 점화는 독립적인 'self'를 활성화시켰을 뿐 만 아니라 또한 다른 중심 특성까지 활성화 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Lowell, Constantine, Jack과 Vevea(2002)의 연구 역시 'I' 점화가 다른 중심 특성까지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Utz(2004)연구와 유사하다. 이들은 자아를 정의하는 일차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메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를 정의하는데 개인적 자아가 일차적 요인이 된다는 자아 우선성 가설(individual-self-primacy hypothesis)이 지지되었다. 상황적 요인에 상관없이, 집단적 자기보다는 개인적 자아에 위협적인 정보는 부인하고 자기 고양적인 정보는 받아들였다. 따라서 개인적 자아는 심리적 안전 기반이 되며, 상황적 맥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정적인 체계라고 제안하였다. 자아 우선성 가설은 자아의 핵심 특질은 상황이나 맥락 심지어는 전 생애를 걸쳐서도 안정적이라고 보는 발달심리학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한편, 개별적 자기, 집단적 자아는 본래적으로 우선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맥락

우선성 가설(contextual-primacy hypothesis)은 기각되었다.

Nelson과 Norton(2005)의 연구 역시 단기적 활성화와 개인특성에 관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도움 주는 범주(category)로서의 초 영웅과 본보기(exemplar)로서의 슈퍼맨을 점화 자극으로 사용하여 초 영웅이나 슈퍼맨의 특성을 묘사하도록 하였다. 이후 버스에서의 자리 양보와 같은 가상적 도움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극단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드러나는 슈퍼맨에 대해서는 자신과는 뚜렷하게 거리를 두는 대조가 일어나 도움행동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초 영웅에 대해서는 동화가 일어나 도움행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런 효과는 점화에 노출된 지 3개월 후에도 영향을 미쳐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움행동은 개인특성으로 가장 잘 예측되며 이런 안정적 요인은 상황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는 구별된다. 또한 이 결과는 일시적인 점화가 도움행동 뿐 아니라 미래의 도움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해석 양식을 점화 자극으로 사용한 연구로는 Sinclair와 Fehr(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참여자에게 Socrates 장군이야기를 이용하여 개인적 영광을 강조하는 독립적 자아해석 점화 조건과 가족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점화 조건을 제시한 후 낭만적 관계에서의 불만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여자는 교제 중인 여대생이었다. 그 결과, 능동/수동(active/passive) 차원의 경우, 독립적 자아해석 점화 조건에서는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능동적, 건설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voice'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조건에서는 관계 향상을 위해 수동적이지만 낙관적으로 기다리는 ‘loyalty’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건설/파괴(constructive/destructive) 차원의 경우,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점화 조건의 경우 관계를 떠나거나, 관계를 끝내겠다고 위협하는 ‘exit’ 전략보다는 관계가 깨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neglect’ 전략을 선호하였다. 이 결과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기적 활성화 효과가 개인특성 효과를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도움행동은 무엇이 자아의 내용으로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특성이 활성화되는지,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성이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개인의 태도와 행동은 가변적이다. 때로는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는 내용과 개인특성의 내용이 유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개인의 성역할과 일치하는 상황 혹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여성성과 관계성은 극대화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통적 성역할과는 다른 내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접하게 된 경우, 여성은 두 상반되는 내용 사이에서 여성성과 관계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들은 여성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특성과 여성의 개인특성 내용이 유사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는 많이 변했고 여성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달라졌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화 과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여성임이 끊임 없이 강조되고 여성성은 여전히 중요한 여성의 자아의 내용이다. 반면, 여성이 마주한 현실은 여성의 독립성과 유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현대 여성은 여전히 성역할이 중요한 자아의 내용을 차지하지만 단기적 활성화는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종종 처하게 된다. 이럴 경우 여성은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애착 역시 개인특성으로 단기적 활성화와 함께 자아의 내용을 결정한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신념을 갖는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지각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애착은 상황이나 맥락의 영향을 받는가? 이에 대해 Bretherton(1992)은 애착이 비교적 상황적 여건과는 무관할지라도, 애착이 표현되는 방식은 개인의 성숙 그리고 애착 관계가 활성화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애착이 표현되는 방식이 단기적 활성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단기적 활성화의 내용에 따라 안정 혹은 불안정 애착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도움행동은 개인특성에 의해 유발된다는 기존의 관점과 단기적 활성화에 의해서도 도움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최근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 및 애착유형과 같은 개인특성과 단기적 활성화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점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는 내용은 자아해석 양식(독립적 자아해석 양식, 관계적 자아해석 양식)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도움행동 유형(개인적 도움행동, 관계적

도움행동)에 따라 도움행동 점수는 차이를 보이는가?

2) 성별과 단기 활성화(점화) 조건에 따라 도움행동은 차이를 보이는가?

3) 애착유형과 단기 활성화(점화) 조건에 따라 도움행동은 차이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140명의 대학생에게 애착척도를 실시한 다음 일주일 후 같은 대상에게 단기 활성화 과제와 도움행동에 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과제가 일주일 간격을 두고 시행되어 과제 중 일부를 수행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생겼으며, 검사 및 설문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는 대상을 제외시켜 대학생 97명(남 42명, 여 55명)의 반응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8명은 애착유형이 불분명하였으며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51명,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38명이었다.

측정 도구

애착척도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Relationship Questionnaire(RQ)

성인의 애착을 재는 검사로서 애착 유형을 안정, 불안/회피, 몰입된, 거부/회피의 네 가지 범주로 제시하여,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유형 하나에 표시를 한 후, 자신이 네 유형의 애착유형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척도 상에 표시하는 검사이다.

도움행동 태도에 관한 설문지

총 18문항. 대학생이 흔히 할 수 있는 도움행동 목록에 대해 6점 척도 상에서 그 정도를 표시하였다. 도움행동 유형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개인적 도움행동은 설문지 자료 컴퓨터에 입력하기, 정기간행물 교정보기, 도서관 서고 정리 등과 같이 타인과의 접촉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도움행동이며 관계적 도움행동은 노약자 외출보조, 독거노인 방문하여 말벗하기, 어린이 공부방 학습지도 등과 같이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움행동이다. 6가지의 도움행동 목록에 대해 참여자는 얼마나 그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 이 도움행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여겨지는지, 이 도움행동이 얼마나 어렵게 생각되는지를 척도 상에 표시하였다.

Socrates 장군 이야기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각색한 제말 이야기

자아해석 양식을 활성화시키는 점화로 사용되었으며 독립적, 관계적, 중립의 세 가지 자아해석 양식에 해당하는 지시문을 만들고 관련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의 점화 자극으로 사용된 지시문과 질문이다.

<독립적 자아해석 점화조건>

‘도성으로부터 급박한 연락을 받고 제말은 누구를 보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심사숙고하였다.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신감에 찬 인물이 필요한데..... 나와 개인적 친분은 없으

나 평소에 일을 처리하는 것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홍록은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품성에, 상황을 꿰뚫는 명석함이 더하여, 일을 잘 처리하니 홍록 같은 유형의 사람이 적임자이리라.’

질문1: 홍록의 특성을 세 단어로 요약하시오.

질문2: 위 상황에서 자신이 제말에게 선발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자기를 소개하시오.

<관계적 자아해석 점화조건>

...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배려해주고 도와주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만한 인물이 필요한데..... 나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평소에 지켜본 바에 의하면 홍록은 따뜻한 성품에 상대의 심중을 헤아려주고, 힘들 때 몸을 사리지 않고 도와주니 홍록 같은 유형의 사람이 적임자이리라.’

절차

- (1) 참여자의 개인특성을 재는 애착검사를 실시하였다.
- (2) 애착검사 1주일 후, 참여자는 임의적으로 세 가지 점화 조건(독립적 자아, 관계적 자아, 통제)에 할당되어 과제를 수행하였다. 독립적 및 관계적 자아해석 점화 과제로는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Sosrates 장군 이야기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각색한 제말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제말이 처한 상황을 읽고 (독립적 자아가 강조되거나 관계적 자아가 강조되는 상황)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성을 세

단어로 요약하게 한 후 요구되는 상황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추천하는 짧은 글을 쓰도록 하였다. 통제집단은 우수한 별씨를 추천하는 짧은 글을 쓰도록 하였다. 소요시간은 10분 이내였다.

(3) 명시적 점화를 통해 각 자아해석 양식으로 단기 활성화시키는 과제가 끝난 직후 다른 실험자가 들어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간단한 예비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설문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하며 도움행동 태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결과처리

우선, 점화를 통해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의도한대로 활성화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말 이야기에 대한 반응인 세 단어 요약과 짧은 추천 글을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실험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으로 세 단어 요약을 하였다. 독립적 자아 점화조건에서는 홍록의 특징을 올곧음, 명석함, 문제해결력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관계적 자아 점화조건에서는 홍록의 특징을 따뜻함, 배려, 도움 등으로 표현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자아해석 양식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제말에게 선발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짧은 글도 점화조건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독립적 자아 점화조건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의 유능성을 소개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험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관계적 자아 점화조건에서는 자신이 남을 배려해서 했던 경험을 기술하기도 하고 자신의 원만한 인간 관계를 드러내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점화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참여자는 없었다. 이와 같은 내용 분석을 통해 각 조건에서 의도한 자아해석 양식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의 종속측정치는 도움행동 설문지의 점수이다. 분석에서는 봉사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계적 도움행동점수와 개인적 도움행동점수를 구하였다. 유형별 도움행동 중 개인적 도움행동에서는 변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 애착유형, 점화 효과 분석은 관계적 도움행동 점수 만 대상이 되었다. 애착유형에 따른 분석에서 애착유형은 Relationship Questionnaire(RQ)에서 A 유형에 표시한 참여자는 안정애착 집단으로 그의 불안/회피, 거부/회피, 몰입 유형은 모두 불안정 애착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애착 집단에서 범주로 표시한 애착유형과 이를 척도 상에 표시하는 것에서 모순을 보인 8명의 반응은 애착유형별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검증용 위하여 점화(독립, 관계, 중립) × 성별(남, 여) 및 점화(독립, 관계, 중립) × 애착(안정, 불안정)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도움행동 유형에 따른 효과

도움행동 설문지에는 개인적 및 관계적 도움행동 유형이 포함되었다. 각 각 점수가 합산되어 개인적 도움행동 점수, 관계적 도움행동 점수를 얻어졌다. 두 도움행동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내 본 결과, 개인적 도움행동과 관계적 도움행동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낮았다. 이런 낮은 상관관계는 점화, 성별, 애착유형 별 분석에

표 1. 성별, 도움행동 유형별 점수

성별	개인적 도움행동	관계적 도움행동
남	3.61(.61)	4.36(.53)
여	3.49(.63)	4.62(.47)
계	3.54(.62)	4.51(.51)

서 도움행동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모든 분석에서 개인적 도움행동은 변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관계적 도움행동에서는 변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유형이 참여자에게 다른 유형의 도움행동으로 지각되었음을 반영한다. 참여자들은 개인적 도움행동보다 관계적 도움행동에서 점수가 높았다. 표 1은 성별, 도움행동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설문지 자료 컴퓨터에 입력하기, 정기간행물 교정보기, 도서관 서고 정리 등과 같이 타인과의 접촉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노약자 외출보조, 독거노인 방문하여 말벗하기, 어린이 공부방 학습지도 등과 같이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더 많은 도움행동을 할 의향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일로 보지 않음을 나타낸다. 관계적 도움행동은 성별에 따라 점수 차이를 보여 $t(1, 95) = -2.60, P < .01$, 여성의 점수가 더 높았다.

성별과 단기적 활성화에 따른 효과

도움행동에서 개인특성으로서의 성별과 단기적 활성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계적 도움행동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점화 × 성별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점화

표 2. 성별, 점화조건별 관계적 도움행동 점수

성별	점화조건		
	독립적 자아	관계적 자아	중립
남	4.27 (.45)	4.31 (.44)	4.47 (.67)
여	4.90 (.34)	4.39 (.49)	4.60 (.41)

효과는 없었고 성별 효과가 나타났다, $F(1, 95) = 7.95, P < .01$. 점화와 성별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2, 94) = 3.15, P < .05$. 이에 따라 추후 분석을 한 결과, 여성은 점화조건에 따라 관계적 도움행동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 중립자극이 활성화되는 조건에서 여성의 도움행동 점수는 각각 4.90, 4.39, 4.60으로서 관계적 자아가 활성화된 조건의 점수는 개인적 자아가 활성화된 조건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관계적 자아 조건에서 도움행동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도움행동점수는 모든 점화조건의 남성 점수보다 높았다. 표 2는 성별, 점화조건별 관계적 도움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애착유형과 단기적 활성화에 따른 효과

도움행동에서 개인특성으로서의 애착유형과 단기적 활성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계적 도움행동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점화 × 애착유형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점화효과는 없었으며 애착범주 효과가 나타났다. $F(1, 87) = 6.78, P < .01$.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86) = .25, P > .05$. 추후 분석 결과, 불안정 애착 집단의 도움행동 평균점수는 안정 애착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3. 성별, 애착유형별 관계적 도움행동점수

성별	애착유형	
	안정애착	불안정 애착
남	4.15 (.54)	4.53 (.43)
여	4.52 (.43)	4.76 (.48)

성별과 애착유형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 애착유형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은 성별, 애착유형별 관계적 도움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애착 남성의 도움행동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불안정애착 여성의 도움행동 점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남성은 안정애착, 불안정 애착 조건에서 4.15와 4.53의 도움행동 점수를 보여 불안정 애착 조건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1, 34) = 5.55, P < .05$). 불안정 애착의 남성이 도움행동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점수보다는 낮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애착유형 및 자아해석 양식의 활성화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결과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개인적 도움행동보다 관계적 도움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도움행동 점수는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성의 도움행동 점수는 남성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의 애착유형에 따라서도 도움행동 점수의 차이를 보여,

불안 애착 집단의 도움행동 점수가 안정애착 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관계적 도움행동에서 개인특성인 성별과 애착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으나 단기적 점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남녀 반응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점화 효과가 나타나 독립적 자아해석이 활성화되는 조건에서 여성의 도움행동 점수가 높았다.

도움행동 유형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도움행동 유형을 다르게 지각하고 다르게 반응하였다. 개인적 도움행동보다 관계적 도움행동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개인적 도움행동에서는 독립변인 효과가 없는데 비해 관계적 도움행동에서는 독립변인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이 도움행동 유형에 따른 구분된 반응은 제시한 도움행동 목록 자체에 포함된 관계성과 여성성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종속측정치로 삼은 도움행동은 무척 다양했다. 시나리오를 주고 도움행동을 예상해보는 연구(Belansky 등, 1994; George 등, 1998)로부터 가볍게 참여자 앞에서 펜을 떨어뜨려 그 반응을 보는 현장 연구(Reysen & Ganz, 2006)에 이르기까지 도움행동의 목록은 다양했다. 또한 도움행동이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지, 상황적 특성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많은 검증들이 이루어졌다(Gillath 등, 2005; Omoto & Snyder, 1995; Wayment,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속측정치로서 도움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태도만 고려했다는 점에서 실제 도움행동과는 구별된다.

현장연구는 논외로 하더라도 도움행동 시나리오를 주어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행동을 제시하는 선행연구(Belansky 등, 1994; George 등, 1998)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도움행동 목록을 주고 그러한 행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러한 도움행동이 의미 있는지를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한 본 연구는 도움행동에 대한 가상적 태도만을 잴기 때문에 도움행동에 관한 실제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도움행동과 관련된 개인특성이 더 확연히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도움행동 유형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대학생들은 제시된 도움행동 목록을 보며 고정 관념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 활성화 내용과 상관없이 제시된 활동과 관련된 고정관념, 즉 관계성과 양육성이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에서, 성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제시된 도움행동 유형에 따라 고정관념과의 관련 정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 도움행동 목록은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목록과 같은 인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관계적 도움행동 유형은 여성성과 관계성을 더 활성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적 도움행동 점수가 개인적 도움행동 점수에 비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이후 연구에서 더 정교하게 검토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성별

여성은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높은 도움행동 점수를 보였다. 또한 남성은 독립변인에 따른 효과검증에서 도움행동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은 독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이 관계적 자아 점화 조건에서의 도움행동 점수는 다른 점화 조건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점수보다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종전의 심리학 관점에서 강조되어온 여성의 관계적 측면을 다시 확인해주는 결과이며 Eagly와 Crowley(1986)의 사회 역할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George 등, 1998; Belansky 등, 1994; Hyde, 1990). 반면, Reysen과 Ganz(2006)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단기적 활성화에 의해 개인특성인 성별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러나 도움행동에서 성별효과는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타났고 단기 활성화 효과는 여성에게만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본 연구에서 성별이 도움행동에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보였는가? 이는 기본적으로 성별이 여전히 도움행동에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측정치인 도움행동 목록에 이미 성역할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설문지자료 컴퓨터에 입력하기, 정기간행물 교정 보기, 도서관 서고 정리 등 개인적 도움행동 목록은 타인과의 관계맺음 없이 혼자서 수행하는 개인적 도움행동인 동시에 특별히 어느 한 성이 더 잘하거나 못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노약자 외출보조, 독거노인 방문하여 말벗하기, 어린이 공부방 학습지도 등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관계적 도움행동인 동시에 친숙성 측면에서 남자 대학생보다는 여자 대학생에게 더 친숙한 활동들이다. 또한 이런 활동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자기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런 유형의 활동은 여자 대학생이 더 유리하다. 이는 George 등(1998)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에게 자기효율감은 도움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별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애착유형

애착은 참여자의 성과 더불어 개인에게 작동하는 내적 기제라는 점에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변수이다. 연구 결과, 단기적 활성화에 의해 개인특성인 애착유형 효과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애착 유형에 따라서 도움행동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불안 애착 유형의 참여자가 안정애착 유형의 참여자보다 도움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안정 애착인 사람이 도움행동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불안정 애착의 참여자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Gillath 등(2005)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회피 애착 유형의 참여자는 더 적게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사와 관련된 이타적 동기도 낮은 반면, 불안 애착 유형의 참여자는 자원 봉사를 통한 자기 고양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게다가 자원봉사는 높은 불안을 보이는 개인의 대인간 문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나타냈다고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참여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애착유형을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구분하고 불안정 애착에 불안, 회피, 몰입 유형이 모두 포함되었지만 불안정 애착 참여자 중 대부분이 불안애착인 점을 감

안하면 이 같은 결과는 설명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을 구분하여 도움행동과의 관련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신념을 갖지만, 불안정 애착의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가 일관되고 신뢰롭지 못하여 관계에 집착하고 관계가 깨질까 전전긍긍한다는 관점에서 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많은 관계를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기 활성화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에 관한 단기적 활성화에 따른 효과보다 개인특성 효과가 두드러졌다. 즉 참여자의 성별과, 애착 유형이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자아해석 양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적 특성이 도움행동에 대한 태도 및 실천에 좋은 예측치가 될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결과이며(Belansky 등, 1994; George 등, 1998; Hyde, 1990), 맥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는 내용에 따라 태도 및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Nelson & Norton, 2005; Utz, 2004).

점화효과는 여성에게만 나타났다. 그러나 나타난 점화효과는 예상과는 달랐다. 즉 관계적 자아가 활성화되었을 때 보다 독립적 자아가 활성화 되었을 때 도움행동 점수가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도움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점화효과는 여성의 도움행동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는 관계적 자아를 활성화시키면 관계적 자아와 관련되는 태도 및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최근의 연구 맥락과는 다른

결과이다. 성 고정관념을 명시적으로 점화시킨 조혜자와 방희정(2003)의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여성에게서 이렇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관계적 자아해석의 활성화 및 도움행동에 관한 설문 의지에 깔린 성 고정관념적 구분에 여학생들이 예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자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양성 평등 및 유연한 성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따라서 고정형적으로 주어지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암묵적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연애, 결혼, 직업 등에 관한 태도에서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계적 자아해석을 의식적으로 유도하는 활성화 및 질문에는 마치 시험 보듯 적절하게 반응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움행동의 태도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도움행동에 관한 설문이 성고정형적 분류를 전제한다는 점이 거부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도움행동 점수는 남성보다 높았다. 이 외에도 단기 활성화 자체가 갖는 효과 때문에 여성에게서 예상과는 다른 점화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경우, 성별로서의 여성성과 단기적 활성화 내용인 독립적 자아가 충돌하지 않고 도리어 도움행동의 점수가 높은 이유는 Lowell 등(2002)의 자아우선성 가설(individual-self-primacy hypothesis)로 일부 설명된다. Lowell 등(2002)은 자기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적 자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선적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집단적 자아, 상황적 요인

과 달리, 개인적 자아는 심리적 안전 기반이며, 자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여성에게 형성된 자아내용으로서의 여성성은 개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자아 내용으로 단기적 활성화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은 Utz(2004)의 결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Utz(2004)는 친사회 성향 참여자들은 'I' 점화 조건에서 친사회적 배려를 보인 반면, 친자아 성향 참여자들은 통제집단보다 'I' 점화 조건에서 더 적은 친사회 배려를 보인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I' 점화는 독립적인 'self'를 활성화시켰을 뿐 만 아니라 또한 다른 중심 특성인 친사회 성향까지 활성화시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경향성은 반복연구에서도 계속 확인되었다. 결국, 개인적 자아가 부각되는 'I' 점화 조건이 관계적 자아가 부각되는 'We' 점화 조건보다 개인적 특성을 함께 활성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관계적 자아가 활성화되는 조건보다 독립적 자아가 활성화되는 조건에서 여성들의 도움 행동이 더 높은 현상을 설명될 수 있다. 즉, 독립적 자아가 활성화되는 조건에서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인 여성성 및 관계성이 함께 활성화되어 도움행동의 점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 보면, 점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활성화된 자아해석양식은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낸 반면, 개인의 성별과 애착 유형과 같이 개인 특성은 대학생의 도움행동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성별효과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 여성의 도움행동 점수가 높았다. 이는 도움행동 자체에 이미 여성성, 양육성, 관계성 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도움행동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도움행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좋은 경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공익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광고 자체에 내포된 특성인 여성성, 관계성, 양육성 등 여성적 가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성적 가치가 활성화될 경우, 여성들에게는 도움행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참여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성, 관계성, 양육성 등의 여성적 가치가 자신의 성역할과 상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을 위한 도움이나 배려를 전하기 위하여 만드는 공익광고는 성고정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특성 성별의 자기 효능감을 낮추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독립적 자아가 단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조건에서 도움행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던 점은 여성이 독립적 자아가 활성화되는 맥락에 놓이게 되었을 때 기대되는 유능성, 독립성의 신장 뿐 아니라 중심특성으로서의 여성성도 좀 더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조혜자, 방희정(2003). 여성의 명시적 암묵적 자아해석에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01-122.
- Bartholomew와 Horowitz (1991)의 Relationship Questionnaire(RQ).
- Belansky, E. S., & Boggiano, A. K. (1994).

- Predicting helping behaviors: The role of gender and instrumental/expressive self-schemata. *Sex Roles*. Vol 30(9-10), 647-661.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Vol. 1): *Attachment*. London: Hogarth Press.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15(5), 159-775.
- Chodorow, N.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Cross, S., Bacon, P., & Morris, M.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91-808.
- Egeland, B., & Farber, E. A.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Erikson, E. H. (1968a).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 & Crowley, M.(1986). Gender and hel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ocial psycholog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0(3), Nov 1986, 283-308.
- George, D. M., Carroll, P., Kersnick, R., & Calderon, K. (1998). Gender-related patterns of helping among friend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2(4), 685-704.
- Gergen, M. M. (1990a). A feminist psychologist's postmod critique of postmodernism. *Humanistic Psychologist*, 18, 95-104.
- Gillath, O., Shaver, P. R., Mikulincer, M., Nitzberg, R. E., Erez, A., Van I., & Marinus H. (2005). Attachment, caregiving, and volunteering: Placing volunteerism in an attachment-theoretical framework. *Personal Relationships*. Vol 12(4), 425-446.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yde, J. S. (1990). Meta-analysis and the psychology of gender differences. *Signs*. Vol 16(1), 55-73.
- Lowell G., Constantine S., Jack L., & Vevea, J. I. (2002). The "I," the "We," and the "When": A meta-analysis of motivational primacy in self-defi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2002). Vol 83(3), 574-583.
- Nelson, L. D., & Norton, M. (2005). From student to superhero: Situational primes shape future hel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1(4), 423-430.
- Omoto, A. M., & Snyder, M. (1995). Sustained helping without obligation: Motivation, longevity of service, and perceived attitude change among AIDS volunteer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Apr95, Vol. 68, 671-686.
- Reysen, S., & Ganz, E. (2006). Gender differences in helping in six U.S. citie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8(1), 63-67.
- Sinclair, L. & Fehr, B. (2005) Voice versus loyalty: Self-construals and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 Utz, S. (2004). Self-activation is a two-edged sword: The effects of I primes on cooper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0(6), 769-776.
- Wayment, H. A. (2006). Attachment style, empathy, and helping following a collective loss: Evidence from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Vol. 8, 1-9.

1 차원고접수 : 2006. 8. 13.

심사통과접수 : 2006. 9. 23.

최종원고접수 : 2006. 9. 24.



A Research of Individual Trait and Short-Term Priming Effects on Helping Behavior

Sook Ja Cho Hee Jeong Bang Hyeja Cho Hyun Je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ndividual trait effects of gender and attachment type and short term priming effects of relational and independent self on helping behavior. The results were summed up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gender and attachment type on relational helping behavior but no effect of short-term priming (2) female participants' scores were higher on all kind of relational helping items than male participants, (3) anxious attachment group's scores were higher on relational helping behavior than secure attachment group's. (4) female participants of independent priming condition showed higher relational helping score, (5) participants' scores were higher on relational helping behavior than individual helping behavior. As the reasons of the results, individual-self-primacy hypothesis and gender stereotype were discussed.

Key words : helping behavior, gender, priming, self-construal